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信解行證' 하는 삶 속에  
행복 가득  
8면

금주의 법구-〈법구경〉  
바르지 못한 행실은 마음의 때요  
담하는 것은 보시의 때요  
악행은 이생과 내생의 때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19호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이직률 '심각'

조기룡 교수, '템플스테이 인력 근무환경 연구' 발표

연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표 불교문화 사업인 템플스테이, 하지만 실무인력이 채 1년도 못돼 그만두고 있다면?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조기룡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불교학연구> 제40호에 실린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109개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웹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근무조건 △복지후생 △보수 △인간관계 △직무자세 △사회적 인식 등 6개 분야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은 외국인과 내국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전문인력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의 2012년 '템플스테이 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문인력 대상군 112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특히 6개월 미만 근무 인력이 32%(35명)에 달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조기룡 교수는 이 원인을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수치화해 분석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간관계 △사회적 인식 △신분보장 및 복지후생 △보수 △직무 자세 △근무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룡 교수는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낮은 보수와 힘든 업무가 이직 요인이지만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경우 인간관계와 사회적 인식이 이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이 특징"이라며 "사찰에서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인식이 이직의 주요 원인인 점은 조 교수의 자료 중 심층인터뷰에 더욱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사찰 특성상 스님들과 일할 때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재가자들이 무조건 참아야 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스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무원들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운영인력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적 인식 부분은 템플스테이 업무를 전문직으로 보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조기룡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토

### 템플스테이 근무인력 재직기간

근무기간	인원	퍼센트
6개월 미만	35명	31.3%
1년 미만	20명	17.9%
2년 미만	21명	18.8%
3년 미만	13명	11.6%
3년 이상	23명	20.5%
합계	112명	100.0%

출처 : 2012년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환경조사'

대상군 112명 평균재직 1년 32%는 6개월 내 이직 시도

인간관계, 가장 큰 이직요인  
"불합리해도 재가자라 참아야"  
봉사 아닌 '전문직' 인식 제고  
정기적 대화 장치 마련 필요

대로 총 6가지 방향에서 개선점을 도출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간관계에서는 불교문화사업단 내의 의사소통 교육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기적 대화 장치 마련이 제시됐다. 또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는 종단의 템플스테이 운영자격증 제도 도입, △직무 자세에서는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을 함께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산학협력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문제로 지적된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조기룡 교수는 "아직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사회법과 종법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일반직 종무원에 준하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사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불교문화사업단에서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팀제 구성을 통해 팀장 이하 일반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상근 운영인력의 업무량을 경감시켜 효율을 증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템플스테이의 지속성장은 운영인력의 능력에 달려있다"며 "운영인력을 전문종무원으로 인식하는 풍토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11월 11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이 공로자를 표창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 생명나눔 불사 20년... 불교 장기기증 '새 장'

생명나눔, 11월 20주년 기념식 개최

"삶의 끝자락에서 있는 사람에게 새 삶으로 이끄는 희망의 끈을 달아줬다." (조계종 원로위원장 밀운 스님)

"너그러움으로 사회에 헌신해온 20년 역사는 우리 사회의 뜻 깊은 모범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부처님의 자비를 사회에 널리 실천해왔다." (문행표 보건복지부 장관)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을 맞아 각계 각층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11월 11일 서울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 행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보건복지부 문행표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강창일 국회정각회장 등은 그중

안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해온 장기나눔 행보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7백명의 참석자 역시 본부의 발자취를 기리며 앞날을 축하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장기를 기증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며 "그동안 본부를 거쳐 간 크고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불교계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자승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동행의 관계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증명해왔다"며 장기기증을 두고 "따뜻하게 기부하는 뜻, 강창일 국회정각회장 등은 그중

2001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가 정착된다"며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역시 "생명을 나누는 것은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다. 장기기증으로 구한 한 생명은 주변의 수 십명을 기쁘게 한다"며 "장기기증문화가 사회전반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본부 발전을 위해 힘써온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을 비롯, 홍보대사 아웃사이더 등 7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가수 정수라씨와 한영씨는 앞으로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중앙종회 신뢰 회복하고 사부대중에게 희망 줘야"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11일 개원... 의장 성문 스님

부위원장 자현·오심 스님  
사무처장 경우 스님 연임  
상임분과위원회도 구성  
막말 등 개원부터 '빠그덕'

조계종 제16대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에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0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16대 종회 원 구성을 진행했다.

80명 의원 중 79명으로 성원된 이날 종회에서는 가장 먼저 16대 종회 원 구성을 처리했다. 이날 중앙종회 의장에는 성문 스님과 명진 스님이 추천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려했으나 명진 스님이 사퇴 의사를 밝혀 철회됐다. 이에 단일 후보로 추천된 성문 스님이 16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에는 자현 스님과 차석부의장에는 오심 스님이 선출됐다. 함께 후보로 추천됐던 조계 스님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종회 사무처장에는 15대에 이어 경우 스님이 재임명됐다.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16대 중앙종회가 개원됐지만 상항이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개원하면서 좋지 않은 여러 모습이 보였다. 이는 종단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힘겨루기하고 대립하는 사이 역사와 대중들은 흘러가버릴 수 있다"면서 "16대 중앙종회는 종단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중요하다. 16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이 신뢰를 회복하고 중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구성이 됐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임시의장으로 나선 영담 스님이 신상발언을 둘러싸고 결국 불협화음이 벌어졌다.

영담 스님은 "현 종회는 개원 의석을 확보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죽었다"면서 "종회는 선거과정의 불법에 이어 폭력성을 종회의원으로 출마시켜 당선시켰다. 현 집행부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시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영담 스님은 총무원 로비에서 참회의 절을 올리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장 선출과정에서는 명진 스님의 금품살포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삼화도량으로 일부 스님과 사찰이 금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것이 종도를 대표하는 종회의원들이나"며 "자리가 돈에 의해 거래되고, 직능을 떠나 직선에서 선출된 스님들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스님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 법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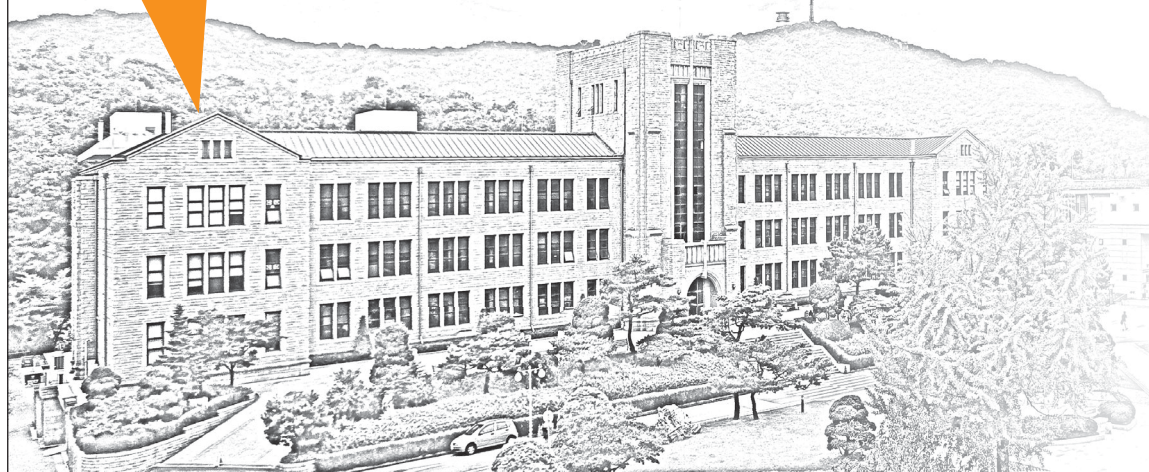
한편, 제16대 중앙종회는 11일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무행정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제200회 정기회는 17일 오전 10시 속회했다. 속회한 종회에서는 △법인관리법 · 승려복지법 · 신도법 개정안 등 종법 제개정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 결의 △중앙종무기관 및 직역 · 특별분담금 사찰 종정감사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신성민 기자  
의장 인터뷰·분과위 명단 16·17면



11월 11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200회 정기회에서 의원 스님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십니다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으로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서식) 1부 ※지원서 이력내용 공간 부족시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함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추천서(지정서식) ※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4.11.20(목)~2014.11.21(금) 17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
- 기타**
  -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총장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참고
  - 문의 (TEL) 02-2260-3005~7 (FAX) 02-2260-8973